

체계적 사회복지 제도 하에서 건강과 행복 누리는 유럽인들

김 장 석 · 한국건강관리협회 홍보과장

■ 독일

7월 4일 오전 8시, 취리히를 떠나 독일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로 향했다.

독일은 인구 8천만명, 국토 면적 36만km², 1인당 GNP 약 2만불의 나라이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독일인의 인기 직업 순은 1위가 기능공(기술자), 2위가 의사, 3위 기자 및 아나운서, 4위 운동선수, 5위가 비행기 조종사이며, 정치가는 13위라고 한다. 우리네 잣대로 보면 이채로운 사실이지만 이것만 보아도 독일인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 1, 2차 세계대전 중 패자가 된 독일을 '라인강의 기적'으로 부흥시킨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의식구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일행은 점심식사를 간단히 한 후 시 외곽의 고성(古城)을 관광했다.

다음날(7.5) 아침 우리는 독일 연방 프랑크푸르트시의 보건부(해센州)를 시찰했다. 보건부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주요 담당 업무는, 1) 국민들의 질병 예방, 2) 의료기관의 응급체제 관리, 3) 종교 등 정신문화관계, 4) 마약관리, 5) 혈액관리,

6)청소년 문제, 7)의약체제 감시 및 관리 업무 등이다.

보건부 시찰을 마친 일행은 근처에 있는 괴테 하우스(Goethe House)를 관람한 후 쾰른시의 쾰른 대성당을 보러갔다.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시내 어디에서나 성당의 두 첨탑(높이 157m)을 볼 수 있다.

쾰른 대주교 콘트라가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이 성당은 1248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880년에야 완공되었다 하니, 건축기간만도 632년이나 걸린 불후의 명 건축이다.

■ 네덜란드

7월 6일 저녁 8시쯤 일행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Amsterdam)에 도착했다.

운하의 나라 네덜란드는 북위 52도에 위치한 인구 1,600만명, 면적 4만km², 국민소득 2만불 정도의 나라로, 전 국토의 약 40% 이상이 바다보다 6m정도 낮고 최고(最高)지점이라도 고작 해발 321m 밖에 되지 않는 구릉지대이다.

저 유명한 대 제방 Afsluitdijk이 국토확장의 입지전을 말해주고 있다. 네덜란드인은 말한다.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었

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이 만들었다' 라고...

■ 프랑스

다음 날 스키폴공항에서 이륙한지 꼭 1시간만인 저녁 6시경 프랑스 파리의 샤를 드골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도착했다. 프랑스는 인구 약 5,700만명, 면적 55만 km², 1인당 GNP 17,500불 정도 되며, 전 국토의 80%가 농지다. 북위 48~52도에 걸쳐 있는 관계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낮시간(05:30~22:00)이 대단히 길다.

옛부터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찬미해 왔던 도시 파리는,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그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예술의 장이기도 하다.

일행은 개선문을 지나 에펠탑(Tour Eiffel)으로 갔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세운 이 탑은 에펠이 설계와 건설을 지휘했고, 미국의 에디슨이 최초로 전기와 전화를 가설했다고 한다.

27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지금까지 100년 이상의 운행기간 중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었

다 하니, 매일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마스크이 얼룩지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사뭇 다른,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우리는 세이느강 선착장에 가서 유람선을 탔다. 유람선이 강을 따라 내려가니 여기저기 낯익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그리고 루우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시 청사, 부르봉 궁전, 발자크 기념관 등등...

7월 8일, 파리의 개선문, 콩코르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라데팡스(첨단시설도시), 노트르담사원-12세기 초 건립. 노트르담이란 말은 성모마리아를 의미한다.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의 심판장소이자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곳이며, 드골장군의 장례식이 치러진 역사의 무대를 둘러본 후 루우브르 박물관을 관람했다.

이곳에 소장된 미술품 중 상당수는 이웃나라인 이탈리아나 이집트 등지에서 가져온 것들인데, 하루에는 다 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고 거대하다.

점심으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인 '달팽이 요리'를 먹고 일행은 파리 '복지단(Securite Sociale)'을 시찰했다.

■ 영국

파리역에서 다음 방문국인 영국으로 가기 위해 유로스타 고속열차를 탔다. 런던의 워터루역에 도착해 숙소로 가는 도중 차창으로 비치는 런던 시가에 대한 첫 느낌은, '아! 회색이구나. 해가 지지 않는다는 나

라 대영제국이...'

영국은 인구 약 5,700만명, 면적 24.4만km², 1인당 GNP 17,000불의 나라이다.

7월 9일 우리는 방문 기관인 런던의 '보건본부(Merton and Sutton Community NHS Trust)'를 시찰했다.

다음날 우리는, 인류 문화유산의 보고(寶庫) 대영 박물관을 관광했다. 1753년 의사 한스톤 경이 내어 놓은 8만점에 달하는 컬렉션과 장서를 바탕으로 시작해서, 로버트 고튼 경과 옥스포드 백작 로버트 해리의 고서들을 함께 모아 1759년에 개관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인류의 문화 유산을 모아 들여 오는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인상깊은 것은 고대 이집트의 미이라와 영국의 고문서관, 그리고 로마와 그리이스의 돌 조각품 등으로, 인류의 끝없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들이었다.

7월 11일, 아침 일찍 '그리니치 천문대'를 둘러보고,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는 그 옛날의 영국 해적선 '바이킹호'를 관람한 후 템즈강의 타워 브리지(Tower Bridge)에 도착했다.

1894년에 완성된 이 다리의 길이는 270m. 우리를 태운 차가 다리 위를 지날 때는 마침 대형 선박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부산 영도 다리처럼 팔(八)자 모양으로 다리가 들려졌다.

이 다리 역시 건립 후 100년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안전사고나 고장 한번 없었다니 갑자기 서울의 성수대교 생각이

났다.

다리를 지나 조금 더 달리니 웨스트 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이 나왔다. 거대한 고딕 양식의 이 건물은 영국에서 가장 격조 높은 사원으로, 국왕이나 여왕의 대관식이 거행되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행은 이어 국회의사당(House of Parliament)을 보러 갔다. 템즈강변에 세워진 이 웅장한 고딕 양식 건물은 영국의 회정치를 상징하는 듯 영국신사의 기품을 물씬 풍겼다. 높이 95m의 탑 안에는 3.5t에 달하는 거대한 종이 달려 있는데, 15분마다 그 은은하고 장중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금의 의사당은 1834년 화재로 소실된 웨스트 민스터 궁전을 대신해서 세운 건물이라 한다.

마지막 스케줄로 영국 국립 미술관(The National Gallery)을 관람한 후 일행은 10박 11일의 유럽 선진 5개국 보건사업 사례 시찰을 끝내고, 귀국하기 위해 런던 히드로 공항(Heathrow Air Port)으로 향했다.

짧은 기간동안, 방문한 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현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동안, 5개국 모두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제도나 시설, 환경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많은 것을 보장받으며 건강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72